

나훈아, 은퇴 선언 ... “박수칠 때 떠난다”



▲ 나훈아 '2024 고마웠습니다-라스트 콘서트' 홍보 이미지, 사진=에아라 예소리

나훈아가 은퇴를 발표했다.

나훈아는 오는 4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청주, 울산, 창원, 천안, 원주, 전주에서 '2024 고마웠습니다-라스트 콘서트(LAST CONCERT)' 를 개최한다.

나훈아는 지난 27일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를 통해 “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반백 년을 훌쩍 넘어 오

늘까지 왔다”며 “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. ‘박수칠 때 떠나라’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”며 해당 공연을 끝으로 은퇴할 것임을 알렸다.

그는 “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‘고마웠습니다’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”면서 “긴 세월 아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줬고,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

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 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줬다”고 털어놓았다.

그러면서 “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!”라고 덧붙혔다.

나훈아는 1966년 ‘천리길’로 데뷔한 이후 ‘무시로’ ‘잡초’ ‘갈무리’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‘가황’이란 별명을 얻었다.

패스트 라이브즈, 미 독립영화상 작품상·감독상 석권



▲ 제39회 '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' 감독상을 수상한 셀린 송 감독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. 사진=로아터/연합뉴스

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(사진)의 영화 '패스트 라이브즈(Past Lives)'가 지난 25일 미국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독립영화상인 제 39회 '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'에서 작품상인 최우수 장편영화상과 감독상을 휩쓸었다.

수상의 영광을 안은 송 감독은 “우리 영화에는 동양적인 개념인 ‘인연’이 있는데, 인생에서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전의 수많은 생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 팀과 그런 느낌을 받았다.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송 감독의 데뷔작인 '패스트 라이브즈'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다.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며,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졌다. 송 감독은 한석규·최민식·송강호 주연의 영화 '넘버 3' (1997)로 유명한 송능환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

한편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·연출을 맡고 스티븐 연 등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'성난 사람들'은 TV 부문 '최우수 신작 시리즈' 상을 받았다.

이병우, 4월 뉴욕서 영화 '마더' 음악 라이브 공연

영화음악 감독 겸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오는 4월 미국 뉴욕 타운홀에서 콘서트를 연다.

소속사 무직도르프는 지난 27일 이병우가 뉴욕 타운홀에 초청받아 4월 18일 기타 콘서트를, 같은 달 20일 영화 '마더' 라이브 연주를 각각 선보인다고 밝혔다.

특히 20일 라이브 연주는 이병우가 음악감독을 맡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'마더' 전체가 상영되면서 음악이 라이브로 연주되는 공연이다.

이 공연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타니아 레온과 할렘 챔버오케스트라가 이병우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. '마더'는 2009년 작품으로 뮌헨국제



▲ 기타리스트 이병우, 사진=무직도르프

영화제, 아시아필름어워즈, 청룡영화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.

이병우는 그간 6장의 기타 솔로 음반을 발표했고, '마더' 뿐만 아니라 '국제시장'과 '왕의 남자', '괴물' 등 30편에 가까운 영화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다.

한편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타운홀(The Town Hall)은 뉴욕 맨해튼 중심지에 있으며, 1921년 개관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, 존 케이지, 휘트니 휴스턴, 밥 딜런, 셀린 디온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. 2012년 국립역사유적지로 지정될 만큼 뉴욕에서 중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.

한남체인 내 코웨이 & 실드라이프

Covid-19 소독제품
여러종류 마스크 판매

정수기 / 비데 / 공기청정기 / 연수기
실드라이프 전기매트, 전기장판

정수기 판매 및 렌탈

714.523.9588 / 714.471.1843 5301 Beach Blvd, Buena Park, CA 90621 **한남체인 내**